

## 〈옥주호연〉의 창작 방법과 여성영웅소설사적 의의

김 대 곤\*

### 차 례

- |                    |                          |
|--------------------|--------------------------|
| I. 서론              | 3. 진교병변의 서사적 활용          |
| II. 〈옥주호연〉의 창작 방법  | III. 〈옥주호연〉의 여성영웅소설사적 의의 |
| 1. 남녀 균형의 서술시각     |                          |
| 2. '감춤-드러냄'의 지연 구조 | IV. 결론                   |

### 국문초록

지금까지 〈옥주호연〉은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옥주호연〉이 형성되었던 19세기부터 여성영웅소설이 점차 대중화되었던 점, 〈옥주호연〉이 필사본보다 방각본이나 활자본으로 활발히 유통되었던 점,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진지성을 보이는 작품은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옥주호연〉의 진지성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 번 검증되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옥주호연〉의 창작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의 진지성을

\* 동의대학교 박사과정

재검토하고, 여성영웅소설사에서 <옥주호연>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선행연구의 거듭된 평가와 달리 <옥주호연>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이 보여준 진지성을 적지 않게 훼손한 작품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작품은 초반에 여주인공과 가부장의 극단적인 대립을 통해 당대 남성중심 사회 질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중·후반으로 진행되면서 남장을 둘러싸고 남녀주인공이 속고 속이는 흥미로운 상황만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옥주호연>에 대한 논의는 작품 초반에 가부장과 심각하게 갈등하는 여주인공의 모습만을 확대하여 얻은 결론이지, 작품의 서사구조나 주제의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평가라 할 수 없다. 초기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이현경전>과 <홍계월전>이 심각한 갈등상황을 통해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옥주호연>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이 구현했던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반감을 흥미소로 활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옥주호연>의 가치는 19세기 독서대중의 바람을 담아낸 작품이라는 데서 찾아야 한다. 19세기는 중세질서에 대한 회의가 점차 확대되면서 중세사회의 붕괴가 가속화되었고, 방각본이 유통되어 특권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문학작품이 민중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19세기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옥주호연>은 중세질서에 대한 낭만과 불만을 보여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사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남녀 균형의 서술시각’을 통해 중세적 가족질서를 둘러싼 갈등과 화합보다는 1:1의 남녀 애정관계를 지향했으며, ‘감춤-드러냄의 지연 구조’를 마련하여 남장을 기반으로 한 남녀주인공의 갈등을 흥미소로 활용하였고, 역사적 사건인 ‘진교병변’을 활용하여 소설적 리얼리티를 확보해 나갔다. 이처럼 <옥주호연>은 중세 사회에 대한 낭만과 불만을 보여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사유에서 벗어나, 19세기 독서대중의 새로운 지향가치를 담아낸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옥주호연>의 작품세계는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옥주호연>은 남녀주인공이 군담을 통해 혼란한 사회질서를 존화양이론적 국가질서로 재편함으로써, 유가적 지향가치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획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녀주인공이 노중에서 자유롭게 만나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 구획된 남녀의 영역을 깨뜨려 애정을 성취하는 탈유가적 지향가치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옥주호연>에서 유가적·탈유가적 사유가 공존하는 이유는 19세기 문학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대부와 민중의 바람이 혼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옥주호연>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에서 영웅담을 통해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실현하려는 사대부의 바람을 계승하면서도, 19세기에 소설 향유층으로 새롭게 편입된 민중의 진솔한 생활감정을 반영하여 ‘남녀 동행에 의한 애정성취’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옥주호연>의 모습은 사대부와 민중의 사유가 혼효되는 과정 속에서 전대 작품과 다른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이 형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주제어 : 19세기 여성영웅소설, 창작 방법, 장르관습, 남녀 균형의 서술 시각, 진지성, 통속성

## I. 서론

<옥주호연>은 남녀주인공의 영웅담과 결연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여성영웅소설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의 모습과는 달리 남녀주인공이 6명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 작품은 현재 많은 이본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필사본·방각본·활자본 등 다양한 유통형태로 향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옥주호연>이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비교적 많은 독자를 확보하여 널리

유통된 작품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작품세계와 유통 상황을 고려하면 여성영웅소설사에서 <옥주호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옥주호연>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옥주호연>에 대한 연구는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나가 다양한 이본을 수렴하여 서지사항을 확인하고 이본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연구였다면, 다른 하나는 여주인공의 행위와 의식을 기반으로 작품의 주제를 살피려는 논의였다. 그 결과 <옥주호연>은 대략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통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차이가 크지 않은 이본들이 형성되어 독자들에게 향유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옥주호연>은 중세질서 속에서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등 진지한 여성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sup>1)</sup>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옥주호연>의 변별적 특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된다.<sup>2)</sup>

하지만 현재 <옥주호연>에 대한 평가가 온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는 대부분 여주인공의 행적과 의식에 집중하여 <옥주호연>이 진지한 여성의식을 구현한 작품이라고 거듭해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옥주호연>이 활발하게 향유되었던 19세기는 여성영웅소설이 점차 대중화되던 시기였으며, 실상 <옥주호연>도 대중매체인 방각본이나 활자본으로 활발히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sup> 이와 더불어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진지성을 보이는 작품은 초기

- 
- 1) 현혜경, 「<옥주호연>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7집, 이화어문학회, 1984. 여세주, 「고소설 <옥주호연> 재고」, 『한국어문연구』 제4집, 한국어문연구학회, 1988. 윤분희,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여성문학회, 2001. 김현옥, 「<옥주호연> 연구」, 이화여대석사논문, 2004.
  - 2) 최근에 <옥주호연>이 국문장편소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논의도 여성영웅소설사에서 <옥주호연>의 변별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이지하, 「<옥주호연>의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4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3.)

여성영웅소설 시대에 창작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sup>4)</sup>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옥주호연>의 진지성에 대한 거듭된 평가가 다시 한 번 검증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 논문은 <옥주호연>의 진지성에 대한 거듭된 평가가 잘못되어 왔음을 밝혀내고, <옥주호연>의 실체에 적합한 가치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옥주호연>의 창작 방법을 살펴 작품의 서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성영웅소설사의 흐름 속에 <옥주호연>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도출된 <옥주호연>의 모습을 통해 실체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한 면모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II. <옥주호연>의 창작 방법

### 1. 남녀 균형의 서술시각

여성영웅소설에서 서술시각을 살피는 작업은 개별 작품의 창작 방법을 파악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서술시각은 남녀주인공 비중의 차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과도 깊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현경전>·<정수정전>·<홍계월전>은 남주인공에 비해 여주인공이 현저히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세 작품이 여주인공의 행적을 통해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반면 <김희경

3)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428-430쪽.

4)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7-8쪽. 정준식,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65-66쪽.

전>·〈부장양문록〉은 남주인공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남주인공을 중심으로 일부다처의 화려한 공존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여성영웅소설은 서술시각에 따라 상이한 주제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서술시각을 확인하는 작업은 <옥주호연>의 창작 방법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줄거리 단락을 중심으로 <옥주호연>의 서술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최문경 부부가 성인의 묘지에 기차치성한 뒤 완·진·경을 낳다.
- ② 완·진·경이 수학하기 위해 광연산 진원도사를 찾아가다.
- ③ 유원경이 금산사에 시주한 뒤 자주·벽주·명주를 낳다.
- ④ 자주·벽주·명주가 무예를 익히다가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자 남북을 입고 가출하다.
- ⑤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가 객점에서 만나 의형제를 맺고 함께 광연산으로 향하다.
- ⑥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가 광연산 도사에게 수학하고, 광연산 도사의 제자 왕정빈은 하산하여 조광윤의 부하가 되다.
- ⑦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가 광연산 도사에게 수학을 마친 뒤, 황하산 귀곡선생에게 군주(조광윤)를 접지 받고 하산하다.
- ⑧ 북한이 국경을 침범하자 천지는 조광윤을 대원수로 삼고,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는 사형인 왕정빈의 천거를 받아 조광윤의 부하가 되다.
- ⑨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가 조광윤을 도와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다.
- ⑩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가 신하들과 함께 조광윤을 황제로 추대하여 송나라를 건국하다.
- ⑪ 자주·벽주·명주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를 지어 부르고, 마침 주위에 있던 완·진·경이 그 시를 듣고 자주·벽주·명주의 정체를 의심하다.
- ⑫ 완·진·경은 함정을 파서 자주·벽주·명주가 스스로 여성임을 드러내게 하지만, 자주·벽주·명주는 완고하게 저항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다.

- ⑬ 완·진·경이 자주·벽주·명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황제에게 상소하고, 이에 황제는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의 혼례를 주선하기로 하다.
- ⑭ 황제가 주연을 배설한 뒤에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를 물에 뛰어들게 하고, 이에 자주·벽주·명주는 자신들이 여성임을 밝히다.
- ⑮ 황제와 황태후의 주선으로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가 혼례를 올린다.
- ⑯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가 태주에서 유원경 부부를 만나다.
- ⑰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가 절강에서 최문경 부부를 만나다.
- ⑱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가 유원경 부부와 최문경 부부를 모시고 황성으로 돌아오고, 이후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의 가문이 창달하다.
- ⑲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가 죽은 뒤에 철종이 즉위하여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다.<sup>5)</sup>

위의 줄거리 단락을 살펴보면, ‘출생 및 만남(①~⑤)’·‘수학 및 출정입공(⑥~⑩)’·‘남장해제(⑪~⑭)’·‘결연 및 가문창달(⑮~⑲)’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서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출생 및 만남’은 부모의 기차치성 뒤에 출생한 남녀주인공이 수학·피화라는 동기에 의해 가출하는 과정이 서술되며, ‘수학 및 출정입공’은 이인에게 수학한 뒤 전장에 출전하여 위태로운 국가를 지켜내는 남녀주인공의 행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남장해제’와 ‘결연 및 가문창달’은 여주인공의 남장행적이 발각된 이후 남녀주인공이 혼례를 올리고 가문이 번창하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옥주호연>의 서사적 흐름은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의 모습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옥주호연>의 서술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여성영웅소설과 구별되는 서사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

5) 앞서 논의했듯이 <옥주호연>은 이본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작품으로, 이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은 방각본(1851년)이다. 이에 방각본 <옥주호연>을 대표본으로 삼아 줄거리 단락을 제시한다.

남녀주인공의 비중이 매우 균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이다. 줄거리 ①~⑤단락을 차지하는 ‘출생 및 만남’을 먼저 살펴보자. 위의 줄거리에서 ①·②단락과 ③·④단락을 보면 남녀주인공의 출생과 가출이 나란히 서술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비슷한 분량을 할애하여 서술되는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녀주인공의 출생과 가출이 병렬적으로 서술된 이후에야 ⑤단락을 통해 두 주인공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남녀주인공의 비중을 대등하게 설정한 <이대봉전>과도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옥주호연>이 남녀주인공의 비중을 대등하게 설정하고자 한 경향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인데, 다음 대목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수학 및 출정입공’ 가운데 ‘수학’은 이인에게 무예를 익히는 남녀주인공의 모습만이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어서 비중을 따질만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 그에 비해 ‘출정입공’은 줄거리 ⑥~⑩단락에 걸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서술되며, 여성영웅소설에서 남녀주인공의 비중 차이는 ‘출정입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옥주호연>의 ‘출정입공’은 남녀주인공의 비중을 확인하는 데 주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옥주호연>에 서술된 ‘출정입공’을 정리하면 ‘남녀주인공의 원양성 공격’, ‘완과 명주의 거짓 투항’, ‘완과 명주의 매복·역공’, ‘자주·벽주·명주의 적장 생포’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자주·벽주·명주가 적장을 생포하는 장면이 있다고 해서 여주인공의 활약이 다소 부각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자주·벽주·명주가 적장을 생포하는 부분은 ‘출정입공’의 세부장면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남녀주인공이 동시에 원양성을 공격하는 과정을 비롯하여 최완과 명주가 남녀주인공을 대표하여 거짓투항·매복·역공 등으로 진장에서 활약하는 과정에 주목한다면, ‘출정입공’에서 남녀주인공의 비중을 균형적으로 설정하려고 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장해제’는 ‘자발적 상포’·‘부마 간택’·‘어

의 진맥' 등을 계기로 이루어지는데, 남복을 벗고 여성으로 돌아가는 여주인공의 모습만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인다. 남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어디까지나 남장의 주체인 여주인공에게 국한된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남장해제'에서 여주인공의 모습만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옥주호연>의 '남장해제'에서는 '자발적 상표'·'부마간택'·'어의 진맥'과 같은 방법이 활용되지 않고, 남복을 벗고 여성으로 돌아가는 여주인공의 모습만이 중점적으로 다루지지도 않는다. <옥주호연>의 '남장해제'는 남장을 유지하려는 여주인공과 남장을 해제하려는 남주인공이 서로 대립·갈등을 일으키며 서술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 때문에 자주·벽주·명주가 여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한편, 완·진·경이 여주인공의 정체성을 끈질기게 밝히려는 과정 또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즉, <옥주호연>에서는 여주인공의 '남장해제'가 남주인공의 끈질긴 수색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남녀주인공의 비중이 대등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sup>6)</sup>

<옥주호연>에서 남녀주인공의 비중을 균형적으로 설정하려는 경향은 '결연 및 가문창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에서 '결연 및 가문창달'은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서술된다. 첫 번째는 <이현경전>처럼 중세질서로 편입을 거부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이 부각되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김희경전>처럼 남주인공을 중심으로 일부다처의 화려한 공존을 보여주는 방향이고, 세 번째는 <백학선전>처럼 남녀주인공이 애정을 기반으로 1:1의 결연 관계를 맺는 방향이다. 여기서 <이현경전>류와 <김희경전>류는 남녀주인공 가운데 어느 한쪽의 행적과 의식이 부각되

6) '남장해제' 과정에서 남녀주인공의 대립과 갈등이 부각되는 모습은 18세기~19세기 사이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현경전>, <부장양문록>, <정수정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옥주호연>에서 나타난 '남장해제'의 과정은 개별 작품의 변별적 특질이 아니라, 18세기부터 마련되었던 '남장해제'의 한 모습을 계승한 것으로 봐야한다.(이병직, 「<이현경전>의 후대적 수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5집, 한국문화회, 2010, 164-171쪽.)

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백학선전>류는 남녀주인공의 관계를 비교적 대등하게 만들려는 균형감을 엿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향 가운데 <옥주호연>은 <백학선전>류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옥주호연>은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의 결연을 각각 1:1로 설정하여 남녀주인공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줄거리 ⑮~⑲단락에서도 두 가문이 결합하는 과정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려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옥주호연>이 ‘출생 및 만남’·‘수확 및 출정입공’·‘남장해제’·‘결연 및 가문창달’의 과정에서 남녀주인공의 비중을 균형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살펴봤다. 이는 <옥주호연>에 실현된 남녀주인공의 균형이 세부장면에 국한되지 않고 작품 전반에 걸쳐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말했듯이 여성영웅소설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에 따라 다양한 서술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여주인공에게 편향된 서술시각을 기반으로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반감을 보여준 작품이 있는가 하면, 남주인공에게 편향된 서술시각을 통해 일부다처의 화락한 공존이라는 중세질서에 대한 낭만을 보여준 작품들도 있다. 여기서 <옥주호연>은 남녀주인공의 비중을 균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남녀주인공의 비중이 편향된 여성영웅소설들과는 다른 지향가치를 보여준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감춤-드러냄’의 지연 구조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주인공은 남장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감추고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었던 당대 사회질서 속에서 여주인공의 대외적 활약을 다루기 위해서 남장이라는 서사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남성-여성’의 성별변모를 보이는 여주인공의 남장과정은 결연담·영웅담과 교묘하게 결합됨으로써 여성영웅소설만의 독특한 서사구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여주인공의 납장은 작품 속에서 대체로 ‘피화’·‘결연’·‘가문회복’·‘자아실현’ 등의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옥주호연>에서 여주인공의 납장은 대략 두 가지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우리 형제 중 혼나흘 죽이시면 인눈이 산난하고 부모의 관인덕이 그린 썩이 될 거시오 쏘 아 등 삼인이 일시의 강세흐든 정녕코 하늘이 유의하시미니 엇지 녹〰히 규방을 직회여 그 저 늙으리오 잠간 부모 슬하를 썩나 신명흔 님군을 도아 공명을 일운 후 금의환향하여 부모 귀 뵈오면 쾌활가 흐노라<sup>7)</sup>

위 인용문은 여주인공이 스스로 납장·가출한 이유를 토로한 부분이다. 이에 앞서 여주인공은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고 무예와 병서를 계속 익히다가 결국 아버지인 유원경에게 발각된다. 이때 유원경은 자신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 딸들 가운데 하나를 죽여서라도 딸들이 무예와 병서를 익히지 못하게 하려고 다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주인공은 인용문과 같이 “만일 우리 형제 중 혼나흘 죽이시면 인눈이 산난하고 부모의 관인덕이 그린 썩이 될 거시오”라며, 눈앞에 닥친 화를 피하는 방법으로 납장·가출을 시도한다. 또한 여주인공은 “잠간 부모 슬하를 썩나 신명흔 님군을 도아 공명을 일운 후 금의환향하여”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처음부터 무예를 익혀 입신양명하겠다는 여주인공의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옥주호연>에서 여주인공의 납장·가출은 ‘피화’와 ‘입신양명’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거듭 지적되어 왔듯이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부장과 여주인공의 치열한 대립이다. 가부장인 유원경과 여주인공인 자주·벽주·명주는 각각 중세질서를 유지하려는 인물과 중세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인물로 표상되는데, 두 지향의 대립은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유원경

7) 방각본 <옥주호연> 10-11쪽.

은 딸을 죽여서라도 남녀의 질서와 가정의 법도를 지키려 하고, 자주·벽주·명주는 가출을 해서라도 중세적 남녀관계와 가족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주인공의 남장·가출은 대부분 전쟁이나 적대자의 횡포와 같이 가정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비해, <옥주호연>에서는 중세질서에 대한 반감이 가정 내부에서 비롯되고 심화되어 여주인공의 남장·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옥주호연>에서 서술된 여주인공의 남장·가출은 당대 가부장제의 모순에 항거하는 진지한 의식이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sup>8)</sup>

그런데 <옥주호연>의 초반에 제기된 진지한 의식이 작품 전반에 걸쳐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실상 작품 속에서 사건이 진행될수록 처음에 제기된 진지한 의식이 점점 멀어지며 흥미소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남녀주인공이 객점에서 처음으로 만나 의형제를 맺는 장면부터 살펴보자. 남녀주인공은 가출한 이후 우연히 객점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이 남장여성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의형제를 맺는다. 그래서 최진은 명주의 손을 잡고 “형의 용모를 본즉 실노 소제의 마음이 흠모하미 심하미 타일 현달흔 후 형갓흔 부인을 어더 일싱 동낙고져 호노라”<sup>9)</sup>라고 하는데, 이는 최진이 명주의 외모에 반하여 명주를 닮은 미녀와 혼인하고 싶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세질서 속에서 남장여성으로 살아가는 여주인공의 불안 증세나 내면적 갈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남장사실을 모른 채 의형제를 맺는 흥미로운 상황만이 강조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 유사한 모습은 남녀주인공이 수학을 마치고 하산하는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남녀주인공은 수학을 마친 후 하산하기 직전에 귀곡선생을 찾아가 예언을 듣게 된다.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즈쥬 등의 글은 슈리

8) 현혜경, 앞의 논문, 221쪽. 여세주, 앞의 논문, 15쪽. 윤분희, 앞의 논문, 271-282쪽. 김현옥, 앞의 논문, 57-74쪽.

9) 방각본 <옥주호연> 15쪽.

매운 말을 타고 고향의 도라오는 날 전포로써 불근 치마를 밧고리로 다”<sup>10)</sup>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여주인공이 임신양명한 뒤에 여성으로 돌아갈 것을 암시한 내용이다. 이때 여주인공의 정체를 모르던 남주인공이 예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곡선생에게 다시 묻자, 귀곡선생은 훗날 자연히 알 것이라 말하고 흐뭇하게 웃기만 한다. 여기에서도 중세질서 속에서 정체를 숨기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여주인공의 긴장감이나 내면적 갈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속이고 관계를 지속하는 데서 발생하는 웃음만이 강조될 뿐이다. 결국 이러한 장면들에서는 유원경과의 대립에서 보여줬던 여주인공의 자의식을 조금도 찾을 수 없으며, 속고 속이는 상황으로 인한 흥미소만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주인공의 남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남녀주인공이 군담을 통해 영웅성을 확보한 이후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남주인공이 남장한 여주인공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 서술의 초점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남주인공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여주인공의 정체를 의심하게 된다. 여주인공이 임신양명한 이후 고향을 생각하며 노래한 시의 구절 가운데 “화경을 잡아 썩로 스창을 의지하여 눈섭 그리기를 게얼니 흥는도다”<sup>11)</sup>라는 부분을 남주인공이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그때서야 남주인공은 황제가 논공행상할 때 여주인공의 관직명을 ‘화주장군’·‘미향장군’·‘옥투장군’으로 제수한 이유를 깨닫고, 비로소 자주·벽주·명주가 여성임을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정체를 끈질기게 밝히려 하고, 여주인공은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려는 과정이 집중적으로 서술된다.

먼저, 남주인공은 함정을 파서 여주인공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유도한다. 완·진·경이 따뜻한 봄날 주찬을 벌여 자주·벽주·명주를

10) 방각본 <옥주호연> 20쪽.

11) 방각본 <옥주호연> 34쪽.

초대한 뒤, 자신들은 갑작스레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전한 채 숨어서 여주인공들을 지켜본 것이다. 완·진·경의 함정에 빠진 자주·벽주·명주는 술을 마시고 상념에 잠겼다가 이윽고 자신들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며 남장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다. 이때 몸을 숨기고 있던 완·진·경이 나타나 자주·벽주·명주에게 남장한 사실이 드러났음을 이야기하는데, 명주는 완·진·경이 자신들의 대화를 듣고 있음을 알고 여성인 척을 했다고 하며 남장사실을 완강히 부정한다. 결국 남주인공은 함정을 통해 여주인공의 정체를 밝혀내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사실을 여주인공이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여주인공의 남복을 벗기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이후 남주인공은 자력으로 여주인공의 남복을 벗길 수 없음을 깨닫고, 황제에게 상소하여 여주인공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황제는 이미 여주인공의 정체를 알고 남녀주인공을 서로의 배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태후와 함께 완·진·경과 자주·벽주·명주의 혼례를 주선하기로 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여주인공이 남복을 벗게 하는 방법인데, 황제는 주연을 베푼 뒤에 남녀주인공을 강물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여주인공이 스스로 남장한 사실을 밝히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현경전>이나 <홍계월전>과 달리 여주인공이 남복을 벗고 여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심각한 갈등을 동반하지 않는 점이다. 물론, <옥주호연>에서도 여주인공이 남복을 벗고 여성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장면이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장면은 중세질서에 편입하기를 거부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장을 둘러싸고 남녀주인공이 속고 속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치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게 정체를 숨기고 동행하는 과정에서 연출된 웃음의 의미처럼, 황제와 남주인공이 한편이 되어 여주인공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데 서술의 초점이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남장과 관련된 남녀주인공의 행보를 살펴보면, <옥주호연>은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의 모습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남성-여성’으로 진행되는 여주인공의 성별 변모과정은 ‘만남-헤어짐-다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결연담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만남’에서는 여주인공이 여성의 모습으로 남주인공과 미래를 약속하며, ‘헤어짐’에서는 여주인공이 남장한 상태에서 남주인공을 찾거나 대외적인 활약을 펼치고, ‘다시 만남’에서는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만나서 남복을 벗고 결연을 이루는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모습과 달리 <옥주호연>에서는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만날 때부터 남복을 입고 정체를 숨기고 있으며, 남녀주인공이 만난 이후에 헤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남장사실을 감추려는 여주인공과 남장사실을 밝히려는 남주인공의 미묘한 심리전이 작품 전반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곧, <옥주호연>이 여성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결연구조에서 벗어나 ‘감춤-드러냄’의 지연 구조를 작품 속에 마련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sup>13)</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옥주호연>에서 마련된 ‘감춤-드러냄’의 지연 구조가 작품 초반에 제기된 진지한 여성의식을 희석하여 흥미소로 활용하고 있는 현상이다. <옥주호연>은 작품 초반에 여주인공이 중세적 남녀관계와 가족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부장과 치열하게 대립한 이후, 서술의 초점이 남녀주인공을 중심으로 남장을 감추고 밝히는 상황만

12)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논문, 1986, 11-16쪽.

13) 박경원은 남장을 통한 여주인공의 성별변모 과정을 ‘감춤-드러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다. 즉, 여주인공이 남장하여 여성임을 숨기는 행위를 ‘감춤’이라고 하고, 여주인공이 남복을 벗고 여성임을 밝히는 행위를 ‘드러냄’이라고 한 것이다. ‘감춤’과 ‘드러냄’은 남장을 통한 여주인공의 성별변모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용어가 될 수 있어서 박경원의 용어를 받아들였다. 다만, <옥주호연>에서는 작품 초반부터 후반까지 ‘감춤’과 ‘드러냄’의 과정이 남녀주인공에 의해 지속·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감춤-드러냄’의 지연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개진하였다.(박경원, 「홍계월전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1, 39-56쪽.)

을 보여주는 데 집중되고 있다. 그에 따라 사건이 진행될수록 초반에 제기된 중세질서에 대한 반감은 점차 열어졌으며, 중세사회에서 남장을 하고 살아가는 여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이나 자아성찰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작품 말미에 여주인공인 자주·벽주·명주가 남복을 벗고 여성으로 회귀하자 아무런 갈등 없이 완·진·경과 결혼하여 중세질서에 편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는 곧, 남주인공의 집요한 수색과 여주인공의 완고한 거부가 충돌하며 구현된 갈등 장면들은 남장을 둘러싸고 남녀주인공이 미묘한 심리전을 벌이는 흥미로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기획된 것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옥주호연>이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의 결연구조에서 벗어나 ‘감춤-드러냄’의 지연 구조를 마련한 것은 진지정보다는 흥미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 3. 진교병변의 서사적 활용

영웅소설은 주인공의 일대기를 통해 ‘개인의 영달’·‘남녀의 사랑’·‘가문의 창달’·‘국가의 안녕’ 등을 구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부침을 거듭하면서 지향가치를 획득해 나가는 영웅의 모습을 ‘출생-고난-수학-출정입공-가문창달 및 국가회복’으로 이어지는 서사구조에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출정입공’은 영웅소설에서 핵심적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출정입공’은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영웅성을 확보하고 지향가치를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백일몽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영웅소설의 가장 큰 흥미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출정입공’이 영웅소설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

여성영웅소설에서도 ‘출정입공’은 주인공이 영웅성을 확보하고 지향가치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김희경전>·<백학선전>과 같이 애정을 주요하게 다룬 작품들에서 ‘출정입공’은 남녀주인공이 애정을

성취하는 계기면서 몰락한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이다. <이대봉전>·<황운전>과 같이 군담이 강조된 작품들에서 ‘출정입공’은 쇠락한 가문을 일으키고 무너진 국가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현경전>·<정수정전>·<홍계월전>과 같이 남녀주인공의 갈등을 보여준 작품들에서 ‘출정입공’은 여주인공이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면서 무너진 국가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여성영웅소설에서 ‘출정입공’은 남녀주인공이 개인적 지향가치인 ‘개인의 영달’·‘자아의 실현’·‘결연의 성취’·‘가문의 창달’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인 동시에 기존의 세계질서로 표상되는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옥주호연>의 ‘출정입공’은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출정입공’ 대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광연산 도사에게 수학하던 왕정빈이 하산하여 조광윤의 부하가 되다.
- ② 남녀주인공이 수학을 마치고 황하산 귀곡선생에게 조광윤의 부하가 되어야 한다는 예언을 듣다.
- ③ 북한이 침범하자 황제는 조광윤을 대원수로 삼아 국경을 방비하다.
- ④ 남녀주인공이 왕정빈의 추천을 받아 조광윤의 부하가 되다.
- ⑤ 남녀주인공이 조광윤을 도와 북한을 물리치다.
- ⑥ 남녀주인공이 신하들과 함께 조광윤을 황제로 추대하여 송나라를 건국하다.

위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①·②·④단락에서는 남녀주인공이 황제가 아닌 인물(조광윤)의 부하로 들어가는 대목이 서술되고, ③·⑤·⑥단락에서는 남녀주인공이 조광윤을 도와 북한과 후주(기존 국가)를 정복하여 송나라를 건국하는 대목이 그려진다.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에서 남녀주인공은 ‘국가위기-출정입공-국가회복’의 과정을 통해 기존 국가의 변형을 보여주고자 한다. 남녀주인공의 애정을 보여준 <김희경전>·

<백학선전>, 남녀주인공의 갈등을 보여준 <이현경전>·<정수정전>·<홍계월전>, 남녀주인공의 군담을 강조한 <이대봉전>·<황운전> 모두 남녀주인공의 활약은 무너진 국가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이와 달리 <옥주호연>에서 ‘출정입공’은 남녀주인공이 ‘국가위기-출정입공-국가건설’의 과정을 통해 기존 국가의 멸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세의 침입이라는 격변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는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옥주호연>의 ‘출정입공’이 여타의 여성영웅소설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오대십국 시대에 일어난 ‘진교병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주목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오대십국 시대는 당나라 말기 중앙의 왕조가 후량·후당·후진·후한·후주로 계속해서 교체되고, 변방에서 오·오월·민·초·형남·남당·남한·북한·전촉·후촉의 10개 소왕국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사라져간 역사적 격변기를 이른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후주의 세종은 조광윤을 절도사로 삼아 밖으로는 영토를 넓히고, 안으로는 민생과 재정을 안정시켰다. 그런데 세종이 959년 거란 원정길에서 병사하여 세종의 어린 아들인 공제가 황제에 오르면서 후주의 세력은 크게 동요하게 된다. 이때 마침 조광윤은 960년에 거란군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였는데, 진교역에 이르러 부하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 송나라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이 개봉 북쪽에 위치한 진교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진교병변’이라 한다.

<옥주호연>이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과 다른 ‘출정입공’의 과정을 보여준 이유는 ‘진교병변’을 서사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줄거리 ①~⑥ 단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조광윤은 송나라를 건국한 송태조의 행적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특히 줄거리 ⑥ 단락에서 남녀주인공을 포함한 신하들은 조광윤이 술에 취한 사이 곤룡포를 입히고 황제로 추대하는데, 이는 ‘진교병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

이다. 그 때문에 줄거리 ⑥단락에서 조광윤을 황제로 추대한 조보, 조빈, 석수신은 모두 실존했던 인물이다. 조보는 조광윤의 책사로 활약하면서 높은 신임을 얻었고, 조빈은 조광윤을 도와 송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힘이 되었고, 석수신은 후주로 회군한 조광윤을 도와 도성을 함락시켰다. 무엇보다 이 세 사람은 왕심기·고희덕·장령탁·조인휘 등과 함께 ‘진교병변’을 계획하고 협력한 인물이다. 이렇듯 <옥주호연>의 ‘출정입공’은 당나라 말기에 일어난 ‘진교병변’을 서사적으로 수용하면서 여타의 여성영웅소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옥주호연>은 여성영웅소설로서 나름의 구성 원리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진교병변’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옥주호연>의 작가는 작품내적 구성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건을 수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왕정빈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진교병변’을 무리 없이 작품에 녹아들게 할 수 있었다. 줄거리 ①단락에서는 왕정빈이 남녀주인공의 사형으로 등장하여 남녀주인공보다 먼저 조광윤의 부하가 되고, 줄거리 ②·④단락에서는 남녀주인공이 귀곡선생의 예언과 왕정빈의 천거를 통해 조광윤의 부하가 되는 장면이 서술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남녀주인공이 황제가 아닌 대원수 조광윤의 부하로 들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줄거리 ⑥단락에서 남녀주인공은 역사적 인물인 조보·조빈·석수신 등과 함께 ‘진교병변’을 일으켜 조광윤을 추대해 송나라 건국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옥주호연>의 작가는 당나라 말기에 일어난 ‘진교병변’을 수용하고, 새로운 인물을 설정하여 실제와 허구의 거리에서 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옥주호연>의 작가가 작품에 적지 않은 변화를 시도하면서까지 역사적 사건을 활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서사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이끌어가고 소설적 리얼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출정입공’은 서사의 흐름 속에서 자

연스럽게 나타나기보다는 반란이라는 형태를 통해 갑작스럽게 서술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쟁장면은 주인공의 위용을 뽐내는 데 치중됨으로써 전쟁의 실체감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옥주호연>의 ‘출정입공’은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국가질서를 수립하려는 남녀주인공의 행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역동적으로 변하는 역사의 순간을 보여줌으로써 현장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옥주호연>이 역사적 격변기인 오대십국 시대를 ‘출정입공’의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마도 <옥주호연>의 작가는 남녀주인공을 오대십국 시대에 활약하여 송나라를 건국한 주체로 표현함으로써, <옥주호연>이 마치 실제했던 위대한 영웅의 승리를 보여준 작품으로 읽혀지길 원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옥주호연>에서 구현된 군담이 여타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서술된 군담과 전혀 다른 지향가치를 보여준 것은 아니다. 여성영웅소설의 군담은 대체로 중국대륙의 패권을 두고 한족과 이족이 충돌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남녀주인공이 이족을 물리쳐 한족 중심의 국가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곧, 여성영웅소설의 군담이 한족 중심의 존화양이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구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옥주호연>의 군담은 여타의 여성영웅소설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존화양이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군담이 서술되고 있는 점만은 다른 작품들과 동일하다. <옥주호연>의 군담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오대십국 시대는 북방 유목민들이 부흥하여 한족과 함께 중국대륙의 패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던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녀주인공은 조광윤을 도와 북한과 후주를 물리침으로써 분열된 중국대륙을 한족 중심의 국가질서로 재편하고 있다.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의 군담이 한족 중심의 국가질서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잠시 흔들렸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면, <옥주호연>의 군담은 한족 중심의 국가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시기를 배경으로 삼은 점만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옥주호연>의 군담

은 여성영웅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존화양이론적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서사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이끌어가고 소설적 리얼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진교병변’을 서사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Ⅲ. <옥주호연>의 여성영웅소설사적 의의

<옥주호연>은 현재 남아있는 자료와 여성영웅소설사의 흐름을 고려하면 대략 19세기 초·중반에 형성된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옥주호연>은 필사본 3종·경판본 4판·활자본 1판이 현존하며, 그 이본들은 대략 1851년과 1935년 사이에 필사·간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본들 가운데 경판본이 가장 이른 시기인 1851년에 간행되었고, 필사본과 활자본은 방각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본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논의되었다.<sup>14)</sup> 그렇다면 <옥주호연>은 대략 19세기 초·중반에 형성되어 별다른 변모없이 20세기까지 필사·간행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옥주호연>이 19세기 이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옥주호연>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이 구현한 일부다처의 화락한 공존이나 중세질서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남녀주인공의 영웅담과 결연담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sup>15)</sup> 또한 앞장에서 살펴본 <옥주호연>의 창작 방법은 여성영웅소설이 모색·형성·정착되던 18세기의 사회사·문학사적 환경으로 설명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옥주호연>의 형성 시기는 19세기 초반 또는 중반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14) 조희웅, 앞의 책, 428-430쪽. 현혜경, 앞의 논문, 206-210쪽. 여세주, 앞의 논문, 2쪽.

15) 류준경, 앞의 논문, 7-12쪽. 정준식, 「성대본 <김상서전>의 생성요인과 자료적 가치」, 『어문학』 제94집, 한국어문학회, 2006, 263-266쪽.

<옥주호연>이 형성된 19세기 초·중반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기반으로 문학 환경이 급격하게 전환되던 시기였다. 그러한 변화들 가운데 소설작품의 향유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출판매체 변화에 의한 문학 향유층의 확대라 할 수 있다. 18세기까지 소설작품은 대체로 필사본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전파의 속도가 느릴 뿐더러 향유층도 일부 계층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18세기 이전부터 방각본이 활발히 간행되었지만 유통의 대상이 『고사촬요』·『사문유취』 등의 백과사전, 『천자문』·『동자습』 등의 학습서적, 『효경대의』·『공자가어』 등의 유교서적, 『농가집성』·『명심보감』 등의 실용서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18세기까지의 사정과 달리 19세기에는 소설작품이 방각본으로 활발히 유통되기 시작한다. 1843년에 <유충렬전>이 간행된 이후 <심청전>·<진대방전>·<삼설기> 등 60여 년 동안 20여 편의 작품들이 방각본으로 유통되었다고 한다.<sup>16)</sup> 이러한 19세기 출판매체의 변화는 결국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소설작품을 민중으로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에 따라 19세기 초·중반은 18세기와는 다른 독서 대중화라는 문학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 환경의 변화로 인해 19세기에 형성된 여성영웅소설 작품은 전대와 다른 작품세계를 보여줬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여성영웅소설사의 구도 속에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성격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 여성영웅소설사에서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성격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19세기에 형성되었다고 확정할 수 있는 작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이 초기 여성영웅소설에 비해 작품의 의의나 논의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연구자들의 인식도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그러나 19세기 여성영웅소설 연구는 문학 환경이 급격하게 전환되던 상황에서 여성영웅소설이 어떻

16) 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 한국 현대 출판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출판미디어, 2003, 82-122쪽.

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까지 전개된 여성영웅소설사를 조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주호연>은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실체적 자료로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옥주호연>은 여성영웅소설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균형 있는 평가를 받지 못 했다. 선행 연구에서 <옥주호연>은 남성중심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구현한 작품이라고 거듭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작품 초반에 여성임을 한탄하고 부모와 갈등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확대 해석하여 얻은 결론이지, 작품의 서사구조나 주제의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평가라고 볼 수 없다.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옥주호연>은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한 여주인공의 진지성이 ‘감춤-드러냄’의 지연 구조 속에서 점차 희석되어 결국 흥미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한 변화와 함께 <옥주호연>은 작품 전반에 걸쳐 남녀주인공의 비중을 최대한 균등하게 유지하려는 서술시각을 보여주었고, 당나라 말기 역사적 사건인 ‘진교병변’을 활용하여 여타의 여성영웅소설과는 다른 균담을 보여주기도 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서사적 특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옥주호연>에 대한 평가가 정합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옥주호연>의 여성영웅소설사적 의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초기 여성영웅소설 시대는 대략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은 대체로 남녀주인공의 비중을 불균형적으로 설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단편 여성영웅소설로 지칭할 수 있는 <설저전>·<이현경전>·<홍계월전>은 여주인공의 활약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데 비해, 장편 여성영웅소설로 묶을 수 있는 <김희경전>·<부장양문록>은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전자가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여주인공의 활약을 돋보이게 서술한 반면, 후자는 남주인공의 여성편력을 통해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낭만을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sup>17)</sup> 그래서 초기 여성영웅소설 시대의 작품은 ‘남녀 불균형의 서술시각’을 기반으로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낭만과 불만을 보여줬다고 판단된다. 당시 여성영웅소설이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음을 생각하면, 중세질서에 대한 사대부들의 낭만과 불만이 초기 여성영웅소설 속에 투영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초기 여성영웅소설이 ‘남녀 불균형의 서술시각’을 기반으로 사대부 계층의 사유를 보여줬다면, <옥주호연>은 ‘남녀 균형의 서술시각’을 기반으로 독서대중의 바람을 구현한 작품이다. 앞서 여성영웅소설은 18세기 후반까지 주로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다가, 19세기에 방각본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향유층이 민중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살펴봤다. 이렇게 문학 환경이 급격하게 전환되던 시기에 형성된 <옥주호연>은 전대 작품들과 다른 서사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남녀 균형의 서술시각’을 기반으로 서로에게 애정을 느끼는 남녀주인공이 1:1의 결연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일부다처의 화락한 공존이나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반감을 보여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지향가치에서 멀어졌다. 또한 ‘감춤-드러냄’의 지연 구조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이 공유하고 있는 ‘만남-헤어짐-다시 만남’의 이합 과정에서 벗어나 남녀주인공의 만남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사적 긴장감이 유지되는 서사구조를 마련하였다. 심지어 ‘진교병변’을 서사적으로 활용하여 당나라 말기의 혼란스런 사회상황 속에서 남녀주인공의 활약을 매끄럽게 서술함으로써, 남녀주인공의 활약을 다루기 위해 갑작스럽게 국가적인 혼란을 서술하는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결과 <옥주호연>은 ‘남녀 균형의

17) 정준식,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과 정착 과정」, 『한국문학논총』 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45-53쪽.

서술시각'을 기반으로 남녀주인공의 애정성취와 사회적 활약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서사구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옥주호연>의 작품세계는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옥주호연>에서는 남녀주인공이 군담을 통해 혼란한 사회질서를 준화양이론적 국가질서로 재편하는 과정이 서술되는 한편, 남녀주인공이 노중에서 자유롭게 만나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 남녀의 미묘한 감정선이 결연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서 전자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사대부 계층의 이상을 온전히 실현하고 있는 점에서 유가적 지향가치를 추구한 것이라면, 후자는 '남녀 동행'이라는 방식을 통해 구획된 남녀의 영역을 깨뜨려 만남을 지속시킨 점에서 탈유가적 방법으로 애정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이렇게 <옥주호연>에서 유가적·탈유가적 사유가 공존하는 이유는, 19세기 문학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대부와 민중의 사유가 혼효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옥주호연>은 초기 여성영웅소설부터 영웅담을 통해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실현하려는 사대부의 이상과 바람을 계승하는 한편, 19세기 새롭게 향유층으로 편입된 민중의 진솔한 생활감정을 반영하여 '남녀 동행에 의한 애정성취'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옥주호연>의 작품세계를 통해 우리는 사대부와 민중의 사유가 혼효되는 과정 속에서 전대 작품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이 형성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

18) '탈유가적'이라는 용어는 남녀가 중세질서에 의해 구획된 영역을 깨뜨려 스스로 없이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물론, 초기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김희경전>은 남녀주인공이 노중에서 만나 연정을 품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남녀주인공의 결연은 '예언을 통한 천상계의 개입-정혼-부모의 허락-공식적인 혼례'의 과정을 거치며 유가적 질서에서 되도록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옥주호연>에서는 '정혼'이나 '부모의 허락'은 애초에 나타나지도 않고, 남녀주인공이 아무런 약속이나 제약이 없이 만남을 지속시키며 애정을 키워 나간다. 이에 <옥주호연>의 남녀주인공은 '탈유가적'인 방법으로 애정을 성취한다고 보았다.

#### IV. 결론

지금까지 <옥주호연>은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진지한 여성의식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되었다. 여주인공의 남장가출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의 모습과 달리, <옥주호연>에서는 중세질서를 유지하려는 가부장과 중세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여주인공의 극단적 갈등이 남장가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영웅소설이 대중화되던 시기에 <옥주호연>이 형성되었던 점, <옥주호연>이 방각본과 활자본으로 활발히 유통되었던 점, 진지성을 보이는 작품은 초기 여성영웅소설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점들 때문에 <옥주호연>의 진지성에 대한 거듭된 평가는 다시 한 번 검증되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옥주호연>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이 보여준 진지한 여성의식을 적지 않게 훼손한 작품이라 생각한다. 이 작품은 초반에 중세질서를 수호하려는 가부장과 중세질서를 거부하는 여주인공의 갈등이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중·후반으로 진행되면서 남장을 둘러싸고 남녀주인공이 속고 속이는 흥미로운 상황만이 강조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초반부에 심각한 갈등양상을 통해 구현되었던 진지한 여성의식이 ‘감춤-드러냄’의 지연 구조에 의해서 와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이현경전>과 <홍계월전>이 심각한 갈등양상을 통해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해 반감을 표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옥주호연>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이 제기했던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불만을 받아들여 흥미소로 활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옥주호연>의 가치는 19세기 독서대중의 바람을 담아낸 작품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에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문학 환경이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당시는 중세질서에 대한 회의가 점차 확대되면서 중세사회의 붕괴가 가속화되었고, 방각본이 유통되어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소설작품이 일반 민중으로 확산되면서 독서대중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19세기 문학적 환경에 대응하여 <옥주호연>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작품세계와 결별하고자 했다. 남녀 균형의 서술시각을 통해 중세적 가족질서를 둘러싼 갈등과 화합보다는 1:1의 남녀관계를 지향했으며, '감춤-드리냄'의 지연 구조를 기반으로 중세적 사회질서에 대한 반감을 흥미소로 활용했고, 중국의 역사적 사건인 진교병변을 활용하여 소설적 리얼리티를 확보해 나갔다. 따라서 <옥주호연>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모색·형성·정착된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작품 세계에서 벗어나, 19세기 독서대중의 새로운 지향가치를 담아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부터 최근까지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간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여성영웅소설의 전반적인 성격에서부터 개별 작품의 변별적 특징에 이르기까지 여성영웅소설과 관련된 성과들이 착실히 축적되었다. 그로 인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모색·형성·정착된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었고, 20세기 여성영웅소설의 모습도 활자본을 통해 대체적인 성격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영웅소설사의 구도가 온전히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 아직까지 여성영웅소설사에서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모습과 성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세기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확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라 논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여성영웅소설사의 흐름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앞으로 여성영웅소설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옥주호연>을 비롯하여 19세기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대곤, 「활자본 여성영웅소설 연구」, 동의대 석사논문, 2012.
- 김현옥, 「<옥주호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4.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논문, 1986.
- 박양리,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본 <이현경전>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학회, 2010.
- 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 한국 현대 출판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출판미디어, 2003.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부, 1985.
- 여세주, 「고소설 <옥주호연> 재고」, 『한국어문연구』 제4집, 한국어문연구학회, 1988.
- 윤분희,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여성문학회, 2001.
- 이병직, 「<이현경전>의 후대적 수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5집, 한국문학회, 2010.
- 이지하, 「<옥주호연>의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43집, 한국고전문학회, 2013.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 정준식, 「성대본 <김상서전>의 생성요인과 자료적 가치」, 『어문학』 제94집, 한국어문학회, 2006.
- 정준식,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 정준식,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과 정착 과정」, 『한국문학논

총』 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조병세, 『송태조 조광윤』, 태봉, 2011.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현혜경, 「<옥주호연>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7집, 이화어문학회, 1984.

황희선, 「옥주호연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8.

<Abstract>

## Significance and manner of writing in 〈Okjuhoyeon〉

Kim, dae-gon\*

〈Okjuhoyeon〉 has been evaluated as one of the heroine novels which combine heroic and tenacious tale of both men and women intimately connected to one another, and handle 'criticism of androcentric society' or 'self-realization of woman'. However, seriousness of 〈Okjuhoyeon〉 is in a position of revalidation because of the several aspects that heroine novel became popular in 19th century when 〈Okjuhoyeon〉 was written, that 〈Okjuhoyeon〉 was distributed as a commercial novel and a printed books than as a manuscript, and that there was an argument to restrict recent heroine novels with seriousness to only those of early stage novels. Thus, this thesis is to re-evaluate by examining 〈Okjuhoyeon〉's manner of writing, and to identify its position among heroine novels.

Unlike a series of evaluations of advanced research, 〈Okjuhoyeon〉 is considered as a literary work that deeply destroyed its seriousness, described in those of early heroine novels. This literary work presents a repulsion of male-dominated public order of the time by a radical conflict between heroine and patriarch at the beginning, however, as it continues to middle phase and the latter half, only deceiving situation between hero and heroine is emphasized. The discussion,

---

\* Dong-eui University

that has made so far, was concluded by focusing on heroine from the radical conflicts between heroine and patriarch, but not the discussion based on a narrative structure nor thematic consciousness. Considering the fact that described in <Yihyeongyeongjeon> and <Honggyewoljeon> among heroine novels, which reflect a repulsion of a male-dominated society order, <Okjuhoyeon> is a literary work that depicts the repulsion, realized in early heroine novels, as an interesting element.

The value of <Okjuhoyeon> should be found where the desire of reading masses in 19th century was included in this work. In 19th century, as the skepticism of medieval order expanded, the erosion of middle age was accelerated, and the distribution of commercial novels led expansion of a literature that had been an exclusive property of the privileged class. In response to these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in 19th century, <Okjuhoyeon> intends to break away from early heroine novels which reflect romance and dissatisfaction of medieval order. Through descriptive perspective of the man and woman balance, it preferred the 1 on 1 relation between the sexes than the conflict and harmony of medieval family order, and prepared an interesting element as a conflict between different sexes by 'hide-revelation lag structure'. <Okjuhoyeon>, also, secured fictitious reality by utilizing historical event, such as 'jingyobyongbyeon'. Therefore, the meaning of <Okjuhoyeon> is a new intended value of 19th century to reading masses that were different to preceded heroine novels.

Also, the world of <Okjuhoyeon> can be a significant evidence to judge the direction of 19th century heroine novels. As reorganizing

the order of nation through the war history, it shows how Confucian intended value, 'Cultivate your morals, manage the family, then rule a nation and the world,' can be gained. By accompanying two different sex characters, <Okjuhoyeon> earned none-Confucian vision. The coexisting reasons of Confucian vision and none-Confucian vision are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 of 19th century literature milieu and the confusion of two different desires between privileged class and ordinary people. In other words, <Okjuhoyeon> succeeds the idea of privileged class, 'Cultivate your morals, manage the family, then rule a nation and the world,' yet, reflects the new life feelings, 'achievement by accompanying woman and man,' of ordinary people who had newly transferred thoughts about 19th century novels. These reflection proves a new form of heroine novel was made under the confusion of two different desires between privileged class and ordinary people.

Key Words : 19th century heroine novels, manner of writing, custom of style, balancing perspective of man and woman, seriousness, modification of story

■ 논문접수 : 2014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4년 8월 29일

■ 게재확정 : 2014년 8월 30일